

중국경제현안

브리핑

제02-18호 / 2002년 3월 14일

중국 全人大 개최: 朱鎔基 총리 정부공작보고 내용 및 평가

1. 개요

□ 주룽지 총리는 3월 5일 제9기 全國人民代表大會(의회: 이하 全人大) 제5차 회의(3.5~15)에 제출한 <정부공작보고>에서 금년도 중국정부의 경제 및 사회개혁 방향을 상세하게 밝혔다.

- 이에 따르면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, WTO 가입에 따른 산업 및 기업개혁을 가속화하며, 농촌경제 발전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기로 함. 또한 부정부패 척결과 외교활동의 강화 등도 강조하였음.

□ 금년도 정부공작보고의 특징적인 내용과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.

- 내수확대: 임금인상,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통한 도시지역에 대한 직·간접적인 소득지원책 실시
- 농촌경제 발전: 세제 개혁 시범지역 확대
- 경제개방: WTO 시스템에 맞는 법·제도의 규범화 및 투명성 확보
- 부정부패 척결: '정권 이양기'의 지방관리 및 금융기관의 부정·부패 엄단

2. 정부공작보고의 주요 내용

□ 주룽지 총리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중국경제는 적극적인 정부정책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을 거두었다고 평가함.

-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의 낙후, 산업구조 조정, 부정부패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

□ 주룽지 총리는 중국의 금년도 중점추진업무로 ①내수확대, ②농촌경제 중점육성, ③경제구조개혁, ④대외개방 가속화, ⑤시장경제질서 확립, ⑥과학 및 교육 발전, ⑦정부기능 정비 및 부패척결, ⑧외교업무의 원활화 등을 제시함.

가.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

□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실시와 민간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함.

- 도시지역의 민간소비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임금인상, 사회보장제도확충, 재취업 기회확대 등을 추진
- SOC 건설 및 서부개발을 위해 1,500억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
-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,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

나. 농업 및 농촌지역의 발전 가속화

□ 농촌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, 농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경감시킴.

-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△한계농지를 環境林으로 전환, △2차 및 3차 산업을 유치하여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이전, △농촌지역에 대한 SOC 건설을 확대함.

- 현재 시행중인 세제개혁 시범지역을 확대하여, 농민의 조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, 시범외 지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세금 징수를 강조함.

다. 경제구조조정 및 체제개혁

□ 낙후 및 과잉설비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,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.

-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방직, 석탄 등 낙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바, 이를 유화, 기계제조, 건축장비 등 여타 비효율적인 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.

□ 국유기업의 주식제 기업으로 개편하고,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 및 기업집단을 육성함.

- 광산채굴업, 군수산업 등 부문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퇴출시키고, 전력, 통신, 항공 등의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함.

□ 서부개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함.

라. 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 가속화

□ 이미 금년초부터 5,3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, 평균관세율을 종전의 15.3%에서 12%로 낮춤.

- WTO 규정에 맞도록 국내 법·규정을 개정하고,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
- 국제경제무대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높이고, 지역경제협력을 적극 추진
-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공무원 및 전문 인재 양성

마. 시장경제질서 확립

☐ 저질, 모조품의 생산 및 판매를 철저히 조사, 감독하여 처벌함.

- 각종 세무 포탈 및 사기행위를 엄단하고,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독
- 지방정부의 묵인하에 행해지고 있는 각종 불공정 경쟁 및 외지기업 차별대우를 금지함.

바. 기타

☐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켜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함.

☐ 정부기구의 개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함.

- 지방의 전시행정을 배격하고, 재정지출의 낭비를 철저히 감시·감독
-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파룬공, 분리주의자 등 체제위협 세력을 엄벌

☐ 국제정치, 경제,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함.

- 한국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, 미국, 일본, EU과의 관계도 발전 개선되고 있음.
-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‘一國兩制’ 원칙을 재확인함.

3. 평가 및 시사점

☐ 금번 공작보고는 ▲내수확대, ▲농촌경제 발전, ▲WTO 가입에 따른 개방체제에 대비, ▲부패 척결 등의 측면에서 이전의 공작보고와 뚜렷한 차이가 있음.

□ 첫째, 내수확대 정책은 지난 수년간의 공작보고에서 계속 강조된 사업이긴 하지만, 이번에는 성장전략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내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.

- 중국이 지난 수년간 내수확대정책을 강조하였기는 하지만, 이는 수출부진에 대한 단기적인 타개책 내지는 대내외 경제의 균형성장 측면이 강하였음.

○ 그러나 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성장전략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위주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, 이번 공작보고에서 이를 더욱 강조한 것임.

- 특히 지난해까지의 내수확대 정책이 주로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소비의 증가에 중점을 둔 반면, 금년에는 민간소비를 강조했고, 특히 민간의 소비수요 현재화를 위한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.

○ 이는 지난 수년간의 재정투입이 정부재정적자를 누적시키고, 투자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를 감안한 것으로 보임.

○ 민간소비를 자극,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및 다양한 실업 및 재취업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.

□ 둘째, 농촌 및 농업문제에 대한 공작보고의 핵심은 농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임.

- 세제 개혁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학자들과 정부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감세(준조세 포함) 정책을 주장하였음을 감안하면, 수년내 전국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세제개혁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음.

- 지난해 강조되었던 도시건설을 통한 농업 잉여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동 및 농촌소득 확대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재차 강조되었음.

-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지원책은 도시지역의 그것에 비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□ 셋째,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계기업의 적극적인 퇴출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의 육성을 언급하였으나, 작년과 같은 국유기업의 적극적인 주식 매각을 강조하지는 않았음.

- 이는 최근 중국정부의 국유주 매각 방침 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폭락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.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여 국유기업 매각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, 금년에는 주가(연초 기준)가 1년전에 비해 20% 정도 하락하였으며, 시가총액도 10% 가까이 떨어짐.

□ 넷째, 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과 산업구조조정은 이전의 공작보고에 비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.

- 주총리는 시장개방이 일부 기업과 산업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겠지만,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함.

□ 다섯째, 부정부패 방지는 매년 공작보고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, 금년에는 새로운 당정지도부 출범 및 WTO 가입 첫 해 등의 요인으로 더욱 강조되었음.

- 금년 가을 제16기 당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가 주요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지도부 이양기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- 부실채권으로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 한 대형 국유은행 행장이 독직사건으로 파면되는 등 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약화되고 있음.

- 부정부패 척결 문제는 전인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.(***)